# 전남도, 농산어촌 개발 1894억 확보… 전국 최다

## 정부 예산의 21% 차지 … 농어촌발전 탄력 기대

## 읍면소재지·마을권역 정비, 신규마을 조성 추진

전남도가 읍·면소재지 정비 등에 쓰이는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국고를 전국에서 가장 많이 확보했다.

전남도는 6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 정비와 마을단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2014 정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총 예산(8723억원)의 21%인 189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읍면소재지 정비, 마을권역단위 정비, 신규마을 조성, 기초생활인프라 조성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남 농어촌지역 발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유형별 주요 사업은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은 2014년 신규사업 11개 읍면을 포함한 33개 읍면에 417억원 ▲마을권역단위 정비사업은 신규사업 7개 권역을 포함한 68개 권역에 604억원 ▲신규마을 조성사업은 신규사업 3개 군을 포함한 9개 시군에 83억원 ▲기초생활인프라 조성사업은 신규사업 27건을 포함한 21개 시군에 79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기존 보조사업과 다르게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상향식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마을 생활 편의시설 확충과 자립 역량을 키우는 것이 특징이다.

전남도는 지금까지 ▲마을권역단위 정비사업으로 92개 권역을 선정해 사업비 3265억원(권역당 25억~50억원)을 지원, 25개 권역이 완료되고 67개 권역이 추진 중이며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으로 40개 읍면을 선정해 6836억 원(읍면당 70억~100억원)을 지원, 16개 읍면이 완료되고 33개 읍면이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이다.

또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중 나주 왕곡권역, 무안 월선권역, 진도 소포권역 등 3개 권역은 사업을 원활히 마무리 한 후 주민들이 합심해 농어촌 체험휴양마을로 지정받았다. 농식품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농어촌 인성학교로 지정받는 등 지속적인 마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밖에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중 2007년 선정돼 2011년에 최초로 완료된 곡성 옥과면소재지 사업의 경우 곡성 기차마을 등 타 사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도 명창환 안전행정국장은 "농어촌에 사람이 돌아오고 활력이 넘치게 하는 3농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농산어촌 개발사업도 전략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광양항 활성화 사업 국비 확보 실패

## "국회의원 지역사업 못챙겼다" 비난

광양시가 광양항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국비 확보에 실패하는 등 상당수 사업들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국회의원이 국회 예산 수립 과정에서 지역사업들을 챙기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광양시는 6일 "올해 신규 및 계속 국책현안사업과 관련 예산 4448억원을 건의했으나 그 81.90%인 3643억원밖에 배정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 주요 역점사업인 동서천 생태하천 정비(29억원), 중앙하수처리장 시설증설(5억원), 광양항 서측냉동냉장 창고(470억원), 국제여객터미널 활성화 사업(200억원), 항배후단지 지식산업센터(400억원) 등의 국비는 반영되지 못했다.

그나마 광양시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각종 시 현안 추진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정부 각 부처를 찾고 여야 국회의원을 찾아 일부 사업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

중앙하수처리장 증설(5억원), 서천 생태하천정비(22억원), 신덕지구 진입도로개설(59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광양시는 그동안 광양제철 및 패밀리사들의 지방소득세 납부비율이 높았으나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광양제철의 수익성 감소가 겹치면서 지난 2009년 700억여원이던 지방세 수입이 올해는 65억여원으로 줄면서 재정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상황에서 지역 국회의원이 지난달 국회 예결위원회 회의 직전 외유에 나서는 등 지역 예산 챙기기에 미흡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광양시 관련 사업이 상임위에는 8건이나 배정됐으나 예결위에서 단 2건만 반영됐다"며 아쉬워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 임성훈 나주시장, 소통행정 읍면동 순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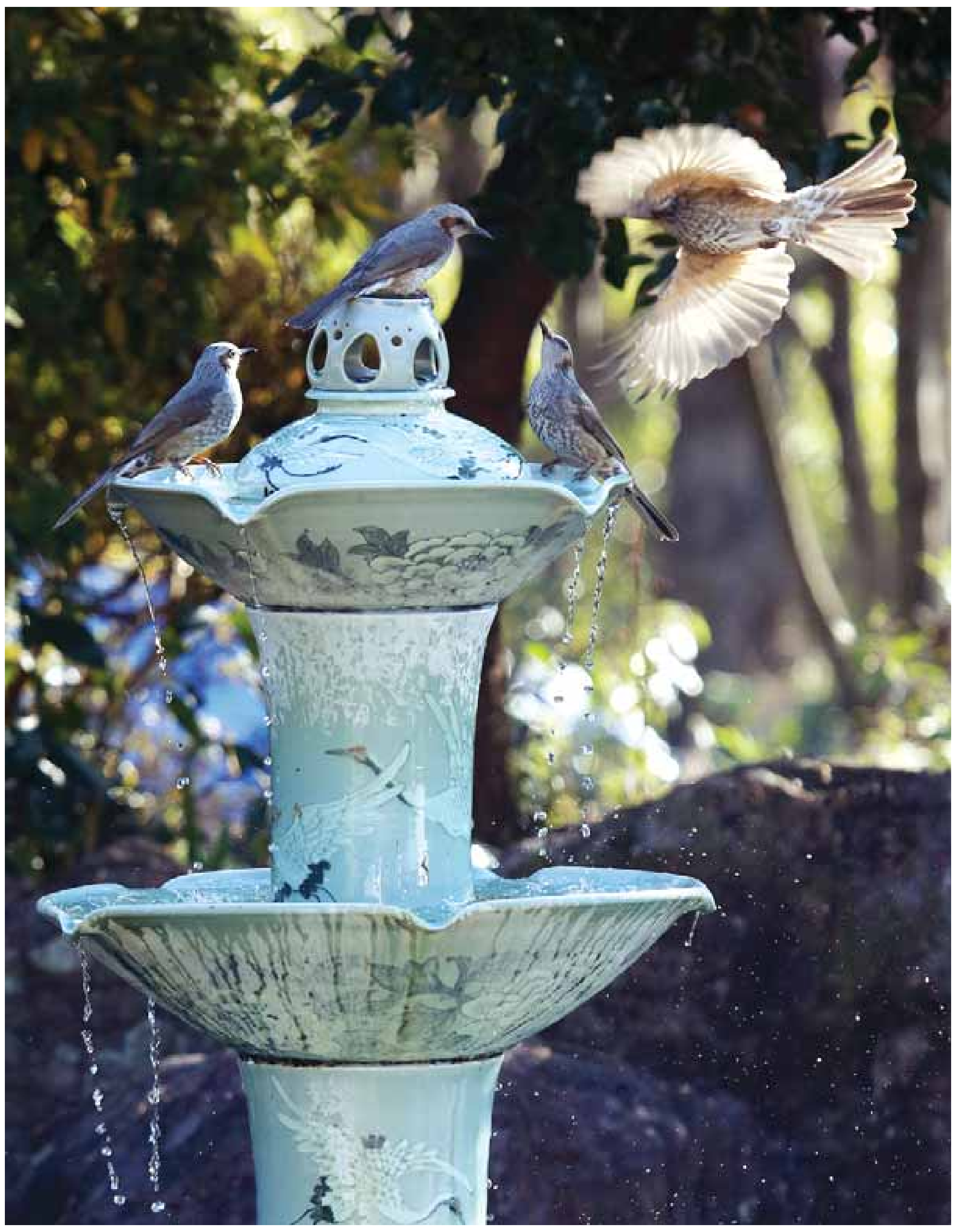
나주시는 6일 "임성훈 나주시장이 오는 8일부터 성북동을 시작으로 19개 읍·면·동민과 소통행정을 위한 연두순방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임 시장의 연두순방은 8일 오전 성북동을 시작으로 19개 읍·면·동에 대해 23일까지 오전과 오후로 나눠 하루에 두곳씩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연두순방에서는 그동안 주민들이 제기했던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주민들에게 알리는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시민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소통행정을 적극 실천한다는 방침이다.

시 안전행정과 관계자는 "시민과의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민의를 수렴하고 민원을 해결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할 계획"이라며 "다만 상황에 따라 일정 조정이 있을 수 있고, 평소 행정기관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들의 참여가 이뤄져서 숨은 민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on@



**"청자분수대, 물맛도 좋네"** 겨울답지 않은 따뜻한 날씨가 이어진 6일 강진군 대구면 강진청자박물관에서 이른 아침부터 직박구리들이 목이 말랐던지 청자분수대로 날아들어 목을 축이고 있다. 〈강진군 제공〉

# 벌교여고, 무지개학교 됐다

## 동부권 인문고 모범사례

## 전남형 혁신학교 지정

지난해 자율무지개학교로 지정돼 다양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성과를 인정받은 벌교여고가 올해 전남형 혁신학교인 무지개학교에 지정됐다.

과거 전남지역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무지개학교는 영광고 단 1곳이었으며, 이번 벌교여고의 지정에 따라 전남 동부권 인문계고의 모범사례로 부상하고 있다.

벌교여고는 6일 "'학생과 교사가 행복한 배움터'라는 교육철학을 교육현장에 적용한 결과 읍 단위의 작은 학교가 무지개학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보성 등 인근 전남 동부지역 중학생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과정을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입학사정관제 등 수시모집이 증가하는 추세로 볼 때 대학 입시에도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벌교여고는 지난달 30일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을 초청해 특강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 특강은 지난해 자율무지개학교로 지정된 뒤 학생들의 인문학적 감수성을 키워주기 위해 시작한 '나를 키우는 인문학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 중 하나로 지금까지 10차례 열렸다.

/벌교=김윤성기자 kim0686@

# 순천시, 하수도정비 사업대상지 선정

## 터미널 주변 하수관 확대

순천시는 6일 "환경부에서 실시한 '2014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사업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순천시 도심은 순천만과의 표고차가 4~5m 내로 적은 비에도 도로 침수는 물론 해수면 상승과 맞물릴 경우 하천주변 저지대 건물침수로 이어져 주민불안과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순천시는 환경부에서 공모한 '하수도중점관리지역 지정 사업'을 지난해 말 신청했다.

시는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한국환경공단의 현지실사와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총사업비 480억 원을 투입해 오천동 한경아파트 주변, 버스터미널, 순천역 등 우선 다중이용시설 주변을 대상으로 기존 하수관을 확대하고 배수펌프장 설치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타당성 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최종 사업비를 확정해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 담양, 전남도 투자유치대상 '우수'

## 1000만원 시상금 받아

담양군은 6일 "전남도 주관 '2013년 전라남도 투자유치대상' 평가에서 기관우수상에 선정돼 1000만원을 시상금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부터 3년 연속 수상이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투자유치실적, 투자유치 환경조성, 투자기업 사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이뤄졌다.

군은 투자유치 전담부서인 투자유치단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친 결과 평가기간 동안 문화·관광 및 첨단산업분야에서 총 21건 4346억원, 233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담양일반산업단지가 본격적으로 조성되면 현대엠코(주) 계열사인 기아자동차 부품생산 전진기지 등 관련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 및 투자유치가 더욱 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담양=정재근기자 jjg@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